



2016년 5월 2권 5호

한국에 있는 3개의 사령부

- 유엔군 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 정전 유지 및 한국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17개 유엔 전력제공국의 통합 사령부.
- 한미연합군 사령부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동맹의 전투사령부.
- 주한미군 사령부 (United States Forces Korea): 미 태평양 사령부 예하 합동군 사령부.

4월 주요활동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 (4월 30일)



(왼쪽부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장군) 신임 사령관이 30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 겸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해리 해리스 (제독) 미 태평양 사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고 있다.

빈센트 K. 브룩스 미국 육군 대장이 30일 유엔군사령부 및 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사령관에 공식 취임했다.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브룩스 사령관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장군이 2013년 10월부터 이어왔던 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 받았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 지난 3월 새 한미 연합군 사령관에 브룩스 장군이 지명됐을 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축하 성명을 발표하면서 “브룩스 사령관은 한반도와 발칸,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작전

지휘관으로 근무하며 사령부의 책임과 파트너십(동맹)의 중요성에 관한 예리한 인식을 키웠다”고 말했다.

스캐퍼로티 장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오늘날 여러 도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유엔의 결의와 동맹의 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언제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빈센트 브룩스 (대장)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여러 번의 어려운 임무를 맡으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했다”며 “가장 최근에 임무를 맡았던 주한미군에서 그는 군인 겸 정치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선보였다”고 치하했다.

“유엔사, 한미 연합사 그리고 주한미군사에서 근무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빈틈없고 강하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한미 동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 커티스 스캐퍼로티 미 육군 장군

스티븐 L. 페이튼 원사도 같은 날 유엔사 및 연합사, 주한미군 주임원사로 취임했다. 페이튼 주임원사는 워싱턴 D.C.의 미 육군 작전 및 기획부(G-3/5/7)의 주임원사로 재임했다.

다니엘 데일리 미 육군 주임원사 사령부 방문 (4월 5일~8일)

미 육군의 주임원사인 다니엘 데일리 원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데일리 원사는 1996년 동두천시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에서 제 9보병 연대 소속 2대대의 하사로 근무한 경력을 떠올리며 “한국에서 우리는 매일 훈련을 통해 강하고 준비된 태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 원사는 마지막 근무때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와 군대 차원의 대비태세에 중점을 두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한국에서는 북쪽의 적과 맞닥뜨린 특성 덕분에 부사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강한 집중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 원사가 한국에서 하사로 근무했을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같은 부대의 대대장(중령)이었다.

USO 주최 제 45회 명예 육성 장병 치하 행사 (45th Annual Six Star Salute) (4월 14일 ~ 15일)

주한미군위문협회 (USO Korea)는 매년 실시되는 이 행사에서 한국군, 미군, 유엔 사령부 소속 장병들 중 매년 약 80명의 모범 장병들을 뽑아 명예 육성 (Six Star) 계급을 수여 하는 행사를 가졌다. 1970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명예 육성 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을 치하하는 자리이다.

4월 주요 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사명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 달 사령부를 찾아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폴 셀바 장군, 미 합참 차장 (Gen. Paul J. Selva, 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해리 해리스 Jr. 제독, 미 태평양 사령관 (ADM Harry B. Harris, Jr., Commander, U.S. Pacific Command)
-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 (Elizabeth Sherwood-Randall, Deputy Secretary of Energy)
- 토마스 로우덴 중장, 미 해군 수상함대 사령관 (Vice Admiral Thomas Rowden, Commander, Surface Forces, Pacific Fleet)
- 마이클 리닝턴 예비역 중장,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국장 (LTG (R) Michael Linnington, Director,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
- 월간 원탁회의에 참석한 유엔사 전력제공국 대사들 (UNC Sending State Ambassadors in a monthly roundtable discussion)
- 다니엘 데일리 원사, 미 육군 주임원사 (Sgt. Major of the Army Daniel Daily)

비번활동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프로야구장을 찾는 관중들이 한층 많아지고 야외 공연이나 각종 페스티벌 등 봄 행사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연등축제 및 보성 녹차밭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등을 손꼽을 수 있다.